

2014년 통합 지방직 9급 기출문제 해설

과목 : 한국사

해설 : 이명호 교수(아모르이그잼)

-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외로운 길을,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조명이 몇 개 꺼진 터널을 걷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럴 땐 외부의 광명을 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야 합니다.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계절인 이 구간 동안에 점수만 높일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1.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 충북 청주 산성동 출토 가락바퀴
- 경남 통영 연대도 출토 치레걸이
- 인천 응진 소야도 출토 조개 껍데기 가면
- 강원 양양 오산리 출토 사람 얼굴 조각상

- ① 한자의 전래로 붓이 사용되었다.
- ② 무덤은 일반적으로 고인돌이 사용되었다.
- ③ 조, 피 등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 ④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

1. 정답 ③

해설 가락바퀴는 실을 뽑기 위한 도구로, 원시적인 수공업의 상징적인 유물입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지요. 신석기 시대에는 조개껍데기 가면, 동물 모양의 조각품,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장신구, 조가비로 만든 치레걸이 등 예술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 양양 오산리에서는 사람 얼굴 모양의 조각상(토면[土面]이라고도 합니다)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예술품의 의미도 있고, 조상 숭배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①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1) 한자(문자)의 사용, 2) 중국과의 교류의 증거입니다. 철기 유적이지요.
- ② 고인돌이 일반적인 묘제가 되었던 시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 ③ 조, 피, 수수 등 잡곡류의 농경이 시작된 시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것이 답이네요.
- ④ 반량전, 오수전, 명도전 등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철기 유적이지요.

4. 정답 ②

해설 신민회(1907~1911)는 국권 피탈기에 국권 회복을 위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던 단체입니다. 애국계몽운동의 특징은 1) 교육, 2) 산업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민회는 여기에 3) 무장 투쟁을 추가하여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등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민회의 교육 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대성학교(안창호), 오산학교(이승훈) 등의 학교입니다. 산업 지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평양 자기회사입니다. 무장투쟁을 강조하여 나온 결과물은 경학사라는 조직과 그 안에서 만들어진 신흥강습소(이후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되지요)입니다.

5.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른바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계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축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고,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변혁하려 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동몽(童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을 간직함이고,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유가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만을 숭상함이다.

- ① ‘조선심’의 개념을 중시하고 한글을 그 결정체로 보았다.
- ②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써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 ③ 실천적인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주장하였다.
- ④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며, 일제의 사찰령에 반대하였다.

5.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자료는 1909년 서북학회 월보에 게재되었던 박은식의 ‘유교구신론(儒敎求新論)’입니다. 박은식은 당시 유교의 3대 문제로서, 1) 사회보급이 부족하다, 2) 대중 전파가 미흡하다, 3) 지리한만에 빠져있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3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것이 유교구신론의 핵심입니다. 박은식은 제시된 자료의 앞부분에서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改良)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① ‘조선심(朝鮮心)’을 강조한 인물은 ‘문일평’입니다. 문일평은 민족문화의 근본을 세종대왕에게 두고 있었으므로 한글을 그 결정체로 보았습니다.
- ②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써서 민족 정신을 강조한 인물은 ‘정인보’입니다. 문일평과 정인보는 모두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역사학자들입니다.
- ④ 한용운은 ‘조선불교구신론’을 내세워 불교의 친일화를 비판하였습니다.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일제가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공포한 사찰령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 (가)~(다)는 고려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윤관이 “신이 여진에게 패한 이유는 여진군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아뢰었다.
- (나) 서희가 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요.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라고 주장하였다.
- (다)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였다.

- ① (가) → (나) → (다) ② (나) → (가) → (다)
 ③ (나) → (다) → (가) ④ (다) → (나) → (가)

6. 정답 ②

해설 (나) 거란 소손녕이 침입하였을 때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한 때는 993년입니다. 이것이 거란의 1차 침입으로서, 고려 성종 때입니다.

(가) 여진족의 기병 부대에 대항하기 위해 신기군이 포함된 별무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이 편성된 것은 1104년이며, 고려 숙종 때입니다.

(다) 1232년 6월 최우가 재·추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천도할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신하들 중에 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최우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승단’과 ‘김세충’이 용감하게 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김세충은 참형을 당했습니다. ><) 자료에서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버리고’란 개경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이란 강화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32년, 최우 집권기로서, 고려 고종 때입니다.

7. 조선 후기 예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인예송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기해예송은 서인의 주장대로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1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③ 기해예송은 효종이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④ 갑인예송은 효종비가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9개월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7. 정답 ①

해설 갑인예송(1674)에서 9개월복을 주장한 당파는 ‘서인’입니다. ①~④에 모두 등장하는 ‘조대비’는 효종의 어머니입니다. 조대비(趙大妃)라고도 하고, ‘자의대비’라고도 합니다. 효종과 효종의 비(妃)가 죽었을 때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 서인과 남인 사이에 시비가 일어난 것이 예송논쟁입니다.

구분	원인	서인	남인
기해예송 (1659)	효종의 죽음 (조대비 복제 문제)	1년복 (채택)	3년복
갑인예송 (1674)	효종 비의 죽음 (조대비 복제 문제)	9개월복	1년복 (채택)

8.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이인좌의 난		규장각 설치

- ① 당백전으로 물건을 사는 농민
 ② 금난전권 폐지를 반기를 상인
 ③ 전(錢)으로 결작을 납부하는 지주
 ④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를 명하는 국왕

8. 정답 ㉓

이인좌의 난은 영조가 즉위한 후 4년째인 1728년에 일어났습니다. 규장각은 정조 즉위년인 177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즉 이인좌의 난과 규장각 설치는 모두 영·정조 즉위 초기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가)는 '영조' 재위 시기를 말합니다. ㉓의 결작은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조는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이면서, 그 재정감소 보완책으로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균역법'이라는 단어와 5가지 재정감소 보완책은 항상 세트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 ①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한 화폐입니다. 당백전은 1866년에 발행되었습니다.
- ② 금난전권은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폐지되었습니다(육의전 제외). 이것은 1791년의 일로, 정조 말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천주교 박해인 신해박해가 있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 ④ 임진왜란 후 경기도에 대동법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1608년의 일로, 광해군 때입니다.

9.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 도(圖)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열 쪽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도(道)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사오니, 오직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소서.

- ①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 ②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 ③ 노장 사상을 포용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주장하였다.
- ④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하였다.

9. 정답 ㉑

'열 쪽'이 되는 '도(圖)와 해설'을 두 글자로 쓰면 '십도(十圖)'입니다. '도(道)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연구하는 것이 '성학(聖學)입니다. 「성학십도」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선조에게 68세의 할아버지 이황이 올린 상소문으로,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와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소서'라는 말에서 성학에 대한 이황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이가 자신과 같은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퇴계 이황은 군주가 스스로 공부할 것을 바랐습니다.

- ①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이황의 성리학입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이황의 제자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②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대공)수미법을 주장한 사람은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이'와 혼동하라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 ③ 성리학자이면서도 노장 사상을 포용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주장한 인물은 '조식'입니다. 그러나 양명학과 노장 사상을 수용하여 성리학 이해에 탄력성을 보인 '소론'에게도 이 문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인물' 문제이니 '조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④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한 인물을 한 사람으로 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②, ③과는 달리 이 지문은 이황에 대해 오히려 반대로 설명한 것이어서 틀린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황은 자신의 저술 「전습록변(傳習錄辨)」에서 양명학을 사문난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10. 다음은 일제 강점기 국외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들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ㄷ.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을 비롯한 연합 부대는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ㄹ.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 ① ㄱ → ㄹ → ㄴ → ㄷ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ㄹ → ㄷ → ㄱ → ㄴ

10. 정답 ②

해설 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을 정통령으로, 이동휘를 부통령으로 하여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4년입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 최초의 망명정부입니다.
 ㄷ.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최진동의 군무 도독 부군, 안무의 국민회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것은 1920년입니다.
 ㄹ. 조선 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였다는 것은 ‘한중연합 작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만주사변(1931), 만주국 수립(1932) 등으로 중국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영릉가 전투는 1932년에 있었습니다.
 ㄱ.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것은 1940년입니다. 창설 당시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청천), 참모장은 이범석이었습니다.

11. 삼국시대 금석문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우총 출토 청동 호우의 존재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②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가 도가(道家)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통해 신라가 동해안의 북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충주 고구려비(중원 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東夷)’라고 낮추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11. 정답 ④

해설 2년 전부터 문화재청은 중원 고구려비를 ‘충주 고구려비’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명칭 변경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중원 고구려비’라는 이전 표현을 함께 표시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충주 고구려비로만 나오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물·유적의 명칭이 과거의 지역 명칭이 아닌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을 붙여 개정된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충주 고구려비에는 ‘12월 23일 갑인에 동이 매금(東夷寐錦)의 상하가 우벌성에 와서 교를 내렸다’고 하여 ‘동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보고, 신라는 동쪽 오랑캐라는 의미를 담아 쓴 말입니다. 즉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격하하여 부른 것이지, 신라가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① ‘청동 호우’란 호우명 그릇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가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사택지적비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때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늙어 가는 것을 탄식하며 세운 비석입니다. 불교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노장 사상·인생 무상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아 당시 백제가 도가(道家)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법흥왕 때 세워진 울진 봉평 신라비를 통해 법흥왕의 율령 반포 사실, 노인법의 존재, 왕의 소속부 명칭 등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울진’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울진 지역(동해안의 북쪽 방면)이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후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 조선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실의 행사에 사용된 도구, 복식 등을 그림으로 남겨 놓았다.
- ② 이두와 차자(借字) 및 우리의 고유한 한자어(漢字語)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 ③ 왕실 혼례와 장례, 궁중의 잔치, 국왕의 행차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하였다.
- ④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신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어람용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14. 정답 ④

해설 ③ 의궤는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책입니다. 세자 책봉, 왕실의 혼인, 각종 상례와 제례, 궁궐 건축 등에 관하여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 기록화를 잘 그린 대표적인 인물은 '김홍도'입니다.

- ① 의궤를 통해 행사 자체의 의식, 절차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행정체계가나 물자, 인원의 동원 능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도식을 통해 당시의 복제(옷을 어떻게 입었나), 장구(무슨 도구를 썼나) 등의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 ② 의궤를 제작할 때엔 이두 차자(借字)와 각종 제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방면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 ④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범하여 당시 강화부 소재의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340여 도서류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 중 의궤만 189종에 이릅니다. '신미양요'와 '프랑스'를 연결시킨 이 문제는 지나치게 친절하네요.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들에게는 반가운 문제가 아니지요.

15.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 협성을 내포하고 있다.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 ② 한국 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③ 미국에서 귀국한 후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5.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자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한 UN 소총회의 결정에 반대하여 '김구'가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입니다. 1948년 2월에 이 글을 발표하였던 김구 선생은 같은 해 4월에는 김규식과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약칭, 남북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 ② 광복 직후 우익 세력은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와 조선 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대를 선언하며, 한국 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때의 중심인물은 '송진우'입니다.
- ③ 미국에서 귀국한 후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구성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인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였던 인물은 '이승만'입니다.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는 이승만 계열의 단체이고,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 중앙위원회'는 김구 등 임시정부 계열의 단체입니다. 이것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은 '대한독립촉성 국민회'입니다. 세 단체의 명칭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한 인물은 '여운형'입니다.

18. (가), (나)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정한다.
 (나) 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 ① (가)는 ‘운요호 사건’ 이후 체결된 것이다.
- ② (가)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 ③ (나)는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것이다.
- ④ (나)에는 천주교의 포교권 인정이 규정되어 있다.

18. 정답 ①

해설 (가)는 ‘조선국=자주국’, ‘(부산항 이외의) 항구 두 곳 선택’이라는 표현을 볼 때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875년의 ‘운요호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체결되었습니다.

(나)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말합니다. ‘장정’이라 한 것은 ‘각 대등 국가 간’에 맺어지는 조약과는 달리 본국과 속방 사이에 맺어지는 약조를 말합니다.

- ②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대한 허가가 규정된 조약은 임오군란 직후의 ‘조일수호조규속약’입니다.
- ③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 청나라가 임오군란을 진압한 후 맺은 것입니다.
- ④ 천주교의 포교권이 인정된 것은 1886년 프랑스와 맺은 ‘조불수호통상조약’입니다.

19.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애국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며,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 ① 이재명이 이완용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 ② 나석주가 동양 척식 주식 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장인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 ④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 역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19.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강도 일본’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조선혁명선언(의열단 선언)’입니다. ‘의열단’의 지침인 이 글은 김원봉의 부탁에 의해 신채호가 쓴 글입니다. 1926년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는 의열단의 단원입니다.

- ① 이재명이 이완용의 허리와 어깨에 칼을 꽂은 것은 1909년 말의 일입니다. 이재명은 잡혀서 다음 해에 당당히 순국하였습니다. 이재명은 미국에서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창립한 공립협회의 회원이긴 하였지만, 고교 교과서 등에서 이완용 습격을 공립협회의 업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의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③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외교고문으로 파견되었던 스티븐스는 1908년 미국에서 장인환과 전명운의 의거에 의해 사살 당하였습니다. 전명운의 총이 불발되어 결국 그 뒤를 따르던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장인환 중심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대동보국회와 공립협회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 또한 어떤 단체의 활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장인환과 전명운이라는 개인의 의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 ④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다음 해에 순국하였습니다. 의거 후 잡혔을 때 자신을 ‘의군(의병) 참모 중장’이라고 밝혔으므로, 어떤 특정 단체 소속이기보다는 의병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 다음은 근대 개혁 방안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 쓴다.
- 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 ㄷ. 대한민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 ㄹ.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한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ㄴ → ㄹ → ㄷ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ㄴ → ㄱ → ㄹ → ㄷ

20. 정답 ②

- 해설 ㄱ.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 쓴다는 것은 '내시 제도 폐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1884년 갑신정변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 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한 것은 1894년 갑오 1차 개혁 때의 일입니다. 국정 사무는 의정부, 왕실 사무는 궁내부가 맡기로 한 조치입니다.
- ㄹ. 재정을 탁지부에서 전부 관리하기로 한 것도 '재정 일원화'입니다. 이것은 1898년에 발표된 독립협회의 헌의 6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ㄷ. 대한제국 황제의 군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899년에 반포된 대한민국 국제의 일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직하고 효율적인 한국사 공부 - 이명호 한국사 www.mhsam.com